

"새로운 청렴의 옷을 입자"...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제언

기사입력시간 : 2024/06/27 [16:58:00]

기고문

"새로운 청렴의 옷을 입자"...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제언



▲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임성재 지사장 © 남도매일

공직자는 스스로의 양심과 청렴한 마음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청렴문화가 어떻게 정착되어야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IT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쉽게 선진국의 문화와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일상속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청렴에 대한 기대사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고 과거의 업무를 답습하면서, 뇌물 혹은 청탁을 받지 않는 청렴의무만을 이행하는 공직자는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공직자에게 청렴의무와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처리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에서 공직자는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일상속 청렴과 혁신을 연계하는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매일 만나는 고객들과 일상적 업무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를 주려는 혁신들이 모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다짐하기 위하여 매년 직원 간 상호존중 청렴윤리 실천 서약을 교환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원 모두

가 청렴의 의미를 생각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다짐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청렴을 마음속에 새기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진단 및 분기별 청렴서신 전달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청렴수준을 조사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공직자도 고객이 요구하는 새로운 청렴의 옷을 입어야 한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전문성, 청렴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변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 시대의 청렴한 공직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임성재 지사장